

<2012년 7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속상하지만 이기게 할게.” (마지막 청산해야 될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2. 성자 주님, 모두 이기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식사 전, 주님과 대화)

<여기서부터 성자 주님의 말씀>

3. 배신자를 위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시대에 살아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더 잘하라고 참아 주는 것이다.
4. ‘혹시 저들이 돌아오려나?’ 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5. 이미 사망으로 가서 끝난 자를 위해 참을 필요가 있느냐.
6. 산 자들을 위해서 어서 못 한 것을 하라고 참으신다.
7.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참으시는데, 인간들이 때를 모르니 못 하고 끝난다. 결국 마지막임을 아는 자들만 목숨 걸고 행하여 영원한 죽음을 면한다. 고로 하나님의 마지막 참으심은 마지막 때를 알고 목숨 걸고 행한 자들을 위한 것이 된다.
8. 말씀을 듣고 마지막 기회의 때를 진정 알고 깨달은 자들은 행하게 되니,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된다.
9. 죽음을 피하는 자는 그 순간이 죽음을 피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아는 자다.

10.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11. 심판자께서 마지막 기회까지 주셨는데도 자기 삶에 빠져 장사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며, 자기 사업에만 빠져 살았다. 그러다 지진·홍수·태풍·포탄 공격·화재·쓰나미 등 재해가 일어나 지구 세상의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죽었다.

12. 다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가 왔어도 안일했다.

13. 죽음 전에는 누구에게나 죽음의 신호와 예고가 ‘짹’ 하고 온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14.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이 기회는 성자의 재림 전 마지막 기회다.

15. 기도를 깊이 하면 확실히 안다. 마지막 기회의 때는 영의 생명이 살 기회다.

16. 때가 되어 늙어 죽는 자에게도 유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7.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마지막 기회를 다 주었는데, 그때 행한 자는 위기를 면하지 않았느냐.

18.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지 물어봐라.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답을 피하지 않으신다.

19. 때가 되면, 만물들까지 돌들까지 사람들이 쳐다보면 깨닫게 한다.

20.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이미 때를 선포하였다.

21. 사람들은 ‘마지막’ 하면, 지구 종말을 생각하며 지구가 싹 없어지는 것으로만 인식한다. 그런데 그동안 마지막이라고 했어도 지구가 싹 없어지지 않으니 잘 안 믿는다.

22. ‘마지막’은 구시대가 끝나는 마지막이다. 이때는 ‘영적 죽음의 때를 면하는 마지막’이다.

23. 지구 파멸, 지구 멸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영혼 멸망’이다.

24. 지구 한쪽이 무너져도 자기만 살아 있으면 된다.

25. 사람들은 ‘말세, 멸망’ 하면, 지구 파멸만 생각한다.

26. 지난날 전쟁으로 인해 수천만 명이 죽었을 때도 지구는 여전했다.

27.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을 두고 심판하셨을 때도 ‘영’들만 멸하셨지, 지구는 조용했다.

28. 마지막 때는 ‘지구 멸망’에 초점을 두지 말고, ‘자기 영과 육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여 죽음의 날을 피하여라.

29. 자기 영혼의 멸망은 마치 육이 밤중에 걸어가다 절벽에 떨어지는 격이다. 영이 사망으로 떨어지는 죽음을 당한다. 영혼의 마지막이다.

30. 어떤 자연재해로 육이 죽는 육의 심판이 일어나는 때는 아주 적다.

31. 재해로 육의 심판을 하는 것은 그것을 거울로 삼고 영의 심판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32. 자기 육의 행위로 인해 자기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영의 심판’은 육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육신이 죽는 자들보다 500~1000배나 많다.

33. 기도하며 영계를 보라. 누구나 보고자 하면 본다.

34. 하나님의 마지막 때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지구 세상에 거의 다다.